

## 무안공항 하늘길 빠르면 상반기 다시 열린다

이 대통령 “재개항 시급”... 국토부장관 “유가족 협의후 바로 진행”  
 전남도 후속 조치 나서... 여수섬박람회 등 해외 관광객 유치 기대

12·29 여객기참사 여파로 1년 넘게 문이 닫힌 무안공항 하늘길이 올 상반기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공항 폐쇄로 봉고된 지역 관광·여행업계의 국내외 관광객 모객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승무원이 트이게 됐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온다. 오는 9월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무회의에서 무안공항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올 상반기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안공항 폐쇄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정 사장은 “무안공항이 1년 넘게 폐쇄되면서 지역 여행·관광업계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다”며 “무안공항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국내선 기능만 하는 광주공항을 임시로라도 국제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해결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유가족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토대로 올 상반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즉시 개항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무안공항은 언제쯤이나 다시 열 수 있어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올 상반기에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무안공항은 현재 사고 조사에 따른 현장 보존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유가족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정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하루빨리 다시 여는 것”이라며 “유가족들과 협의해 사고 기록을 정확히 남기되 현장 보존 문제를 잘 매듭지어 최대한 신속하게 개항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부족한 물리적·정책적 이유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관문 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분석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개항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공항 재개항 논의와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투입 등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도 이 대통령의 무안공항에 대한 관심과 국토부장관 등 정부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무안공항 재개항 시 이후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장, 오는 4월 여수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UNFCCC Climate Week) 행사와 9월 예정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공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의 경우 지방 공항으로는 유일하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왕복 6~8시간 거리의 동남아 노선을 운항한 뒤 제주 등으로 국내선을 운항하는 등 효율적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공항인 점을 적극 활용, 다양한 해외 노선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국제공항 상반기 재개항을 통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도록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돌파해 거래를 마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00 돌파 한 달만에... 코스피 ‘6000피 시대’ 개막

외인·기관 ‘쌍끌이’ 순매도에도 재미 ‘사자’로 지수 상승 견인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며 역대급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첫 목표로 삼았던 ‘코스피 5000’ 달성 한 달여 만의 쾌거로 국내 증시 호황 장기화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2포인트(p) 오른 6083.8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처음으로 59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폭을 키워 장중에는 6100선을 웃돌며 역대 장중 최고가와 증가 모두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 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2837억원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2247억원, 8808억원씩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 6000 돌파 기념식에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인 국내 증시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이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 업종도 성장폭을 키웠다”며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등 종합적인 요인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미국발 AI(인공지능) 관련 빅테크 파트너십 체결 혼풍을 타고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75%, 1.29% 상승했다.

기아는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500만대 생산 달성 소식에 힘입어 12.7% 급등했고, 현대차(9.16%)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 밖에 고려아연도 소액주주 보호를 명문화하며 이날 13.04% 오르는 등 특종주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주에서도 미래에셋증권(8.64%), 현대차증권(3.37%), 삼성증권(2.04%) 등이 웃었다. 코스피 성장세가 가팔라진 만큼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월 22일 처음으로 5000선

을 돌파한 뒤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급등해 6000포인트를 달성했다. 최근 한 달 새 10여개의 증권사도 코스피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가 최대 78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나증권이 전망치를 7870으로 가장 높게 잡았고, 현대차증권(7500), NH투자증권(73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25p 오른 1165.25을 기록했다. 개인이 3929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2346억원, 1300억원씩 순매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이송체계 광역화 혁신... 응급실 뱅뱅이 막는다

중환자는 광역상황실서 병원 선정  
 광주·전라 시범 시행후 전국 확대

광주시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전역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네트워크 중심의 이송체계 혁신에 나선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호남권 3개 사도는 도서 및 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많지만,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선정됐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행정통합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OK! 지금 전남시대

#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쟁 불필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사도민 소통 플랫폼